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김나현¹ · 이은주² · 곽수영³ · 박미라⁴

계명대학교 간호대학¹,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², 동산의료원³, 경산대학교 간호학과⁴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s of Parenting Burden of Working Mother with Young Children in Korea

Kim, Na Hyun¹ · Lee, Eun Joo² · Kwak, Su Young³ · Park, Mee Ra⁴

¹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Daegu

²Department of Nursing, Taegu Science University, Daegu

³Dongsan Medical Center, Daegu

⁴Department of Nursing, Gyeongsan University, Gyeong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essential structure of the lived experience of working mothers' parenting burden in Korea. **Methods:** Eight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were interviewed. The Colaizzi analysis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was applied. **Results:** Seven theme clusters were extracted: a life with constant conflict, sense of guilt, feeling anxious because of lack of information about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social stigma as a deficient mother, family relationship becoming distant, a life being exhausted, day to day struggle. **Conclusion:** These results provide an opportunity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s of working mothers related to parenting their young children. It would also serve as a medium for the formulation of appropriate nursing intervention relevant to burdens of parenthood.

Key Words: Working mother, Parenting burden, Young childre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산업 구조의 변화와 지속적 경제성장 및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 증대로 인하여(Song & Lee, 2011)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1년 49.7%로 전체 여성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1). 이와 같이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과거 가정 내에서 여성의 몫이었던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이 재조정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역할분담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

하지 못해 취업모들은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Park, 2008).

취업모들은 어린 자녀를 돌보는 보육 상황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부담을 느끼게 되며, 여기에 일, 가사, 육아를 모두 훌륭히 해내야 한다는 주변의 바람과 사회적 시선은 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Kim & Chang, 2008). 따라서 여성에게서 육아부담은 취업을 지속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며(Statistics Korea, 2011), 특히,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여성에게 두고 있는 한국의 경우 기혼 취업여성은 남성보다 양육 부담감을 더 높게 인식하기 때문에(Park, 2008; Song & Lee, 2011) 직장가정의 책임이 동시에 주어지 역할을 수행

주요어: 취업모, 양육부담감, 어린 아동

Corresponding author: Lee, Eun Joo

Department of Nursing, Taegu Science University, 47 Youngsong-ro, Buk-gu, Daegu 702-723, Korea.
Tel: +82-10-4501-2735, Fax: +82-53-320-1066, E-mail: augmentin@naver.com

투고일: 2012년 11월 5일 / **수정일:** 2013년 5월 9일 /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7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유발된 스트레스는 심리적 및 신체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여성은 물론 가족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게 된다(Yang & Shin, 2011).

학령전기의 어린 아동은 감각적 경험과 운동 활동을 통하여 사물을 이해하고, 외부 환경에 반응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자율성과 독립심이 발달함으로써 주변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과 학습을 시도하지만, 위험에 대한 경험이나 판단이 미숙하여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Shin et al., 2009), 부모의 역할 긴장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Hill, Hawkins, Ferris, & Weitzman, 2001). 특히 어린 아동을 보육시설이나 대리 양육자에게 맡기는 취업모들은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여 조직에 몰입하기 어렵거나 심리적 고충이 있으며, 늘 시간이 부족하고 정신적 여유가 없는 불안정한 삶을 경험한다(Yang & Shin, 2011).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여성 취업률이 20대에는 높게 나타나지만 결혼과 양육이 맞물리는 30대에 떨어졌다가 40대 초반에 다시 높아지는 M자형 구조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즉, 30대의 어린 아동을 둔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가사와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Statistics Korea, 2011)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부담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양육 부담을 주목하고 있으며(Park, 2008), 국가별로 취업모의 양육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육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의 확충, 적절한 기간과 급여를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정착이 미흡하며 사업장내에서의 적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워(Yoo, 2012) 취업 여성들이 겪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크다. 이렇듯 양육부담이 커지게 되면 출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Park) 취업모가 경험하는 다양한 양육 부담의 형태를 파악하여 이를 경감시켜줄 수 있는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양육부담감과 관련된 국내 문헌은 장애아동이나 특정 질환을 가진 환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 편 보고되어 있지만(Lee, Park, & So, 2008; Yoo & Kim, 2006),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간호학분야에서 이루어진 양육 부담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양육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거나 양육부담감 정도를 조사한 양적 연구로(Bang, 2004; Ko, 2008; Park, 2008), Han (1997)에 의해 개발된 자녀돌보기 부담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도구는 2000년 이전에 개발된 도구로서, 최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의 양육부담감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업모의 양육경험을 조사한 질적 연구 1편이 보고되어 있지만(Kim & Chang, 2008), 이는 첫 자녀를 출산한 지 36개월 이하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첫 어머니 됨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어 다양한 체험을 포괄적으로 탐색하였기 때문에 어린 아동을 둔 취업 여성의 양육 부담감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지 못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24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 국가가 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여성들이 자녀 양육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이처럼 출산율이 최저로 하락한 현 시점에서 양육 부담을 해소시키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혼 취업 여성이 경험하는 양육부담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취업모의 양육부담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최근의 양육환경을 반영한 양육부담감 도구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취업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의 완화 및 출산율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경험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질적 연구방법인 Colaizzi (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어린 아동을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취업모의 양육 부담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취업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부담감이 무엇인지 서술하여 그 경험에 대한 의미의 본질을 탐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어린 아동을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취업모의 양육 부담감의 본질은 무엇인가?’이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olaizzi (1978)가 제안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의 의미 및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Colaizzi 분석방법은 개인의 속

정보다는 연구참여자 전체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속성을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취업모가 경험하는 양육 부담감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하여 현재 어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양육부담감에 대한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목적적 표본추출 방법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는 생후 12개월 이상 6세 이하의 어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 중에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장에 5년 이상 다니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면담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37세였으며(범위: 34~39세),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기면서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가 7명, 베이비시터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1명이었다. 참여자들의 경제적 수준은 상·중·하 중에서 모두 '중'이었으며, 교육수준은 초대졸 이상이었다. 종교는 무교 1명, 기독교 4명, 불교 2명, 가톨릭 1명이었다. 직업은 학원 강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사무직 4명, 교사 1명으로 근무시간은 평균 8.5시간이었다.

본 연구에서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를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가 아동에게 자율성과 독립심을 발달시키는데 매우 중요하지만(Shin et. al., 2009), 경험과 판단이 미숙하기 때문에 돌보는 시간과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므로 부모의 역할긴장이 높고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여(Hill et al., 2001) 양육

부담감 또한 클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2012년 2월 28일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심층면담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면담 시작 전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면담은 모성병동에 근무한 경험 및 모성간호학 분야 교육경험이 풍부한 연구자 2인과 질적 연구 수행의 경험이 있는 연구자 1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면담장소는 참여자의 사생활이 최대한 유지되면서도 편안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집이나 병원 내 작은 세미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익숙한 직장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된 주요 질문은 “일을 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부담감과 관련되는 참여자의 진술내용이 명료하고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적절한 추가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면담을 하였다. 첫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최소 40분에서 최대 2시간이었으며, 추가 면담을 포함하여 각 참여자마다 2~3회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이 이루어지는 동안 연구자는 참여자의 의미 있는 표정과 행동 등을 메모하였다.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모두 녹음하였으며, 녹음한 내용과 메모내용은 면담이 끝난 후 바로 연구자가 직접 컴퓨터에 입력하였으며, 최대한 참여자의 진술 그대로를 기술하였다. 내용 중 모호하거나 함축적인 부분은 참여자와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Variables	Age	Length of work (year)	Number of child	Child's age (year)	Surrogate caregivers	Number of interview
Participant 1	36	6	2	6, 4	Husband	2
Participant 2	37	10	2	6, 3	Mother	2
Participant 3	34	12	1	1	Mother	3
Participant 4	39	5	1	7	Sister	2
Participant 5	36	10	1	2	Mother in law	3
Participant 6	38	14	2	5, 7	Mother in law	3
Participant 7	39	15	2	6, 7	Sister	3
Participant 8	37	10	1	4	Baby sitter	2

추가면담을 실시하거나 전화로 내용을 명료화하였다. 면담은 자료가 포화되어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내용이 반복되는 시점에서 종료되었다.

자료수집 과정 중 연구자들은 Lincoln과 Guba (1985)이 제시한 질적 연구의 평가기준을 따라 질적 연구결과의 엄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면담 과정 중 참여자로부터 양육부담감에 대한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느낌을 살려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내용은 다시 참여자에게 확인받는 과정을 거쳐 내용의 진실성(credibility)을 확보하였다. 연구결과의 적용가능성(applic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참여자들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어린 아동을 둔 전체 취업모가 경험하는 양육부담감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일관성(consistency)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간 지속적인 비교 분석과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진술내용에서 주제를 발견하고 이로부터 주제모음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중립성(neutrality)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문헌고찰을 하지 않았으며 연구자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는 양육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괄호 처리하여 선 이해와 가정을 통한 주관성이 면담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필사 후에는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으며 내용을 확인하였다.

4. 자료분석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연구자가 함께 모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이견들은 원자료와 비교하면서 반복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필요시 참여자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양육부담감 경험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Colaizzi (1978)가 제시한 자료분석방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단계로, 우선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며, 연구참여자가 진술한 생생한 느낌과 전체적인 이해의 통찰력을 얻고자 하였다. 참여자가 기술한 내용 중 양육부담감 현상과 관련이 있는 구절이나 문장에 밑줄을 그어가며 의미 있는 진술들을 추출하였다. 그런 다음 의미 있는 구절이나 문장의 맥락을 숙고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발견하여 이를 연구자의 언어로 재구성하였다. 재구성된 의미들 중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여 주제를 도출하였다. 비슷한 주제들을

다시 모으고 통합하여 더욱 추상적인 수준인 주제모음을 이끌어냈다. 최종적으로 연구자들이 도출한 양육부담감의 본질적 구조를 반영하는 주제모음이 타당한지를 검증받기 위하여 연구참여자에게 그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친 후 연구를 시행하였다(No. 12-193-1).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면담 시작 전 연구의 목적과 취지, 연구방법 등을 설명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녹음됨을 알려주었다. 연구참여자에게 모든 면담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자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개인적인 정보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함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6. 연구자 준비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 자신이 연구도구이므로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진술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그 의미에 보다 민감해 지기 위해서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론 교과목을 학점 이수하였으며, 또한 면담기법을 익히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론 워크숍에 참여하여 실제적 훈련을 받은 경험을 활용하였다. 현상학과 관련하여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선행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워크숍, 학회참석 및 정기적인 연구모임 등에 참여하여 질적 연구자로서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연구결과

1. 주제모음

총 8명의 연구참여자로 부터 얻은 원자료로부터 추출한 의미 있는 구절이나 문장은 총 176개였다. 이 중에서 의미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묶고, 다시 원자료를 확인하면서 연구자가 재구성한 의미 75개를 도출하였다. 이로부터 참여자 각 개인의 특수한 경험은 배제하고 일반적인 의미를 조직하여 17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그런 다음 이들 주제를 더욱 추상적인 수준으로 통합하여 7개의 주제모음을 조직하였다(Table 2).

Table 2. Experience of Working Mother's Parenting Burden

Theme clusters	Theme	Formulated meaning
Life full of conflict	1. Dedicated to kid, but unable to gain support from others	· Working for the future of the child · Preparing for the financial resources for her kid · Lack of support system · Need to be understood
	2. Difficulty to concentrate on work because of child care	· Working brings vitality to life and promotes goal setting · Need to be recognized for capabilities as a provider · Poor concentration to work
	3. In a conflict situation about her choice combining parenting with working	· In a conflict situation between parenting and working · Concerned with work that might affect negatively with the child · Unable to decide which should be prioritized between parenting and working
Guilt feeling	4. Feeling sorry and pity for the child	· Feeling sorry for lack of time with her kid · Feeling sorry for her longing for love and attention
	5. Guilt feeling of being unable to fulfill the role of primary caregiver	· Blaming oneself for child's inappropriate behavior · Regarding her kid as lacking self-confidence and being intimidated due to lack of support
	6. Trying to reward to her kid by intentional behavior or gifts	· Trying to provide for child's favorite things as a reward and a replacement for poor parenting · Trying to convey the love and support in the form of rewards
	7. Working might bring negative impact on child's development	· Easily gets irritated to her child due to stress and fatigue · Hurry the child most of time · Child gets intimidated by poor parenting attitude
Feeling of anxiety due to lack of educational information	8. The thought of having her child being left behind due to lack of information	· Feeling separated from other housewives · Feeling frustrated due to lack of educational information from housewives · Anxiety about her child might be left behind with other children
	9. Inability to engage in child's education due to fatigue and lack of time	· Feeling lack of energy to take care of kids due to fatigue · Absolute lack of time for guiding the child's learning
Social stigma of parental neglect	10. Want to be understood about difficult life but people blame for poor parenting	· Mental stress is more difficult than being physically exhausted · All eyes follow the mother who neglects parenting. · Being asked to be a perfect mother
	11. Having child's problems as a result of poor parenting of mother	· Child's growth-related problems brought about by poor parenting · Blamed more working mom than housewives about poor parenting
Strained family relationships	12. Troubled with maintaining good relationship with other family members due to misunderstanding about parenting	· Having a hard time expressing children's issues with the family · Wanting to rear the kid through her on way · In conflict with other family members about parenting
	13. Complaints about husband's lack of support on child care	· Lack of supportive husband for parenting role · Feeling frustrated with husband's lack of sense of responsibility in child care
Burnout and emotional exhaustion	14. Heavy responsibility for child care due to lack of available support systems	· Doing everything for child care by herself without any help · Parenting role is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mother
	15. Getting tired of unresolved conflict about parenting	· Getting tired of taking care of the child · Repetition of unresolved conflicts about parenting
Daily struggle	16. Having sense of comfort for ensuring a better future for her child	· Self rationalization for own's parenting · Self consolation for having a stable financial support for child's needs · Self consolation for working hard to the child's happiness · The need to be understood by her children
	17. Expecting the child to be proud for having a working mother	· Wanting the difficult time to pass as soon as possible · Hoping for child's respect in the future · Feel comforted by imagining herself in the future

제1주제 모음: 끊임없이 갈등하는 삶

주제 1. 일을 하는 것은 아이를 위한 헌신이지만 지지를 받지 못함

참여자들은 엄마가(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다면 아이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힘들더라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자신의 선택이 불가피하며, 자신의 삶은 아이를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헌신과 노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모역할만을 강요하는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태도로 힘들어 하였다.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애들의 장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주위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지금은 애기 키울 시기인데...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 힘들어요.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참여자 7)

주제 2. 육아로 인해 일과 관련되어 충분한 시간투자를 못하는 것에 대해 갈등이 있음

참여자들은 직장 내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승진도 하면서 인정받는 존재로 인식되길 원했다. 이를 위해 일에 매진하며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길 원했지만 육아에 신경을 써야 하는 현실로 인해 일에만 전념할 수 없어 안타까워했다. 육아와 일을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여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기 어려웠기 때문에, 참여자들로 하여금 일에 대한 갈등을 느끼게 하였다.

내가 일하면서도 그쪽 방향으로 능력을 쌓아서 성공하고 싶고, 단계적으로 내 일에만 전념을 하면 그쪽으로 더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혼자만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에만 치우치면 애들이 엉망이 되니까 애들한테는 소홀해지고...(참여자 1)

주제 3.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갖지 못하여 늘 갈등 속에 있음

참여자들은 취업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갈등하였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긴장 상황을 견뎌나가고 있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에서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까봐 불안해하였다. 또한 자녀의 경제적 지지만 충족되고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금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잘못된 애기를 듣게 되면 갈등이 심하죠. 나중에 내가 애들한테 더 많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 해도 애들이 그전에 잘못 되어 버리거나 나중에라도 잘못되어 버리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가 모두 소용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참여자 2)

제2주제 모음: 죄책감

주제 4.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주지 못해 미안하고 안쓰러움

참여자들은 아이들이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시기에 그렇지 못하는 것에 안쓰러워했다. 늘 아이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하였으며,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며 집착하고 매달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주말 가족여행도 거의 못가고 하니까 애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못 누리는 것 같아 많이 미안해요. 가슴도 아프구요. 시간 있으면 놀이터도 같이 나가서 놀아주고 눈썰매장도 데리고 가고 하고 싶은데 거의 못 그러니까 참 많이 미안해요(참여자 2)

주제 5. 주 양육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늘 죄책감을 느낌

참여자들은 영, 유아기 부모역할의 가장 기본을 양육이라 여기고, 애정어린 양육을 통해 자녀가 자신감을 가지고 올바르게 성장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아이가 예상치 못한 모난 행동들을 보이거나 남들 앞에서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죄책감을 느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가 그만큼 지원을 못해 주니까 애들에게 힘을 못 실어주는 거죠. 엄마가 그 만큼 적극적으로 잘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아이들도 적극적이 되고 자신감도 가지고 할 텐데.(참여자 6)

주제 6.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을 의도적인 행동이나 물질로 보상하려 함

참여자들은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음식, 혹은 잦은 애정표현을 통해 보상에 주고 싶어 하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이 아이에게 전해지고 자신의 빈자리로 인한 공허함이 채워질 것이라고 믿었다.

애들이 엄마한테 집착할 때 일은 해야 하고 안 할 수는 없어 많이 안아주고 표현하고 지들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대신하게 돼요... 갖고 싶은 장난감,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미리 주문해서 갖다 놓는 다든가, 물질적으로 보상해주고 엄마 손길로 많이 쓰다듬어주고 이러면 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참여자 1)

주제 7. 자신이 일을 함으로써 아이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함

참여자들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재촉하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서도 아이와의 상호작용이 없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양육태도로 인해 아이의 요구가 무시되어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의존적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집에서도 늘 바쁘니까 애들한테도 늘 빨리 빨리라는 말이 습관이 되어 버렸어요. 뭘 해도 빨리하라고 재촉하게 돼요. 시간이 있으면 애가 스스로 하도록 지켜보고 기다려주기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해버리고, 애들한테 스스로 하는 걸 잘 못 가르쳐줘요. 자립심을 키워줘야 하는데 그게 안돼요.(참여자 2)

제3주제 모음: 아이교육에 관한 정보와 시간부족으로 불안함

주제 8. 아이교육에 대한 또래 엄마들과의 정보공유가 어려워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함

참여자들은 자녀교육을 가장 힘들어하였다.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들은 넘쳐나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자녀교육에 올인하는 또래의 전업주부로부터 정보를 얻기 원하지만 또한 여의치 않았다. 이로 인해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큰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자신의 아이가 낙오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늘 불안해하였다.

엄마들 모임이 있어도 항상 오전에 있거든요. 갑자기 연차내기도 어렵고, 그런데서 엄마들이 우리 아이는 어떻고, 설명회 있는 것도 얘기하고 하는데 나는 그런 정보도 아예 없고 설명회 같은 데도 가지를 못하니까...나는 막 키우는 것 같은데, 왠지 불안하니까 인터넷 같은 데라도 들어가 찾아보고 그러지만 그것도 실마리가 있어야 하는데...(참여자 3)

주제 9. 피곤함과 시간부족으로 인해 아이교육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함

참여자들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교육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지만 막상 퇴근 후에는 피곤함으로 인해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시간 또한 절대 부족하여 교육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잘 해줘야지 싶은 마음으로 퇴근하는데 막상 퇴근하면 진을 다 빼고 오니까 놀자고 하든지, 뭐 같이 하자고 하면 잠깐만, 잠깐만 해놓고 자버린다던지. 그런데 막상 노는 날 되면 그렇게 놀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교육이 제일 문제죠. 진짜 이브닝 마치고 탁 가면 자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유치원 가버리고, 올 시간 되면 와서 할머니 하고 놀고 씻고 자고...(참여자 3)

제4주제 모음: 부족한 엄마로 낙인찍힘

주제 10. 힘든 삶에 대해 정서적으로 위로받고 싶으나 육아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비난받음

참여자들은 직장 일 뿐만 아니라 육아와 가사 일까지 하면서 하루하루 전쟁 같은 삶을 살면서도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자신의 고단한 삶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해해주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였다. 일을 하기 때문에 전업주부 보다 가사일과 육아에 서툴기 마련이지만 조금의 실수라도 하게 되면 육아를 소홀히 한다는 비난과 질책이 쏟아져 속상해하였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한 건 괜찮아요. 어떻게든 해나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내 방식이 틀렸다 라고만 생각하고 나를 비난만 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지지해주면 좋겠는데...(눈물 흘림) 꽃힌 화살이 많아지면서 혼자 우는 시간도 많아요.(참여자 2)

주제 11. 아이의 잘못된 습관은 곧 엄마의 육아소홀 때문으로 결론지어짐

참여자들은 일을 선택함과 동시에 그에 따르는 책임도 모두 져야했다. 여전히 육아는 엄마의 몫으로 여기는 문화 때문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일하는 엄마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돌아온다고 하였다.

일하기 때문에 애들을 잘 못 챙겨서 그렇다. 엄마 때문에 애들이 구질구질하게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죠.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집에만 있는 엄마들도 집이 어질러져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리 집이 그러면 또 내 탓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애기문제, 살림문제 안 될 때는 전부 내가 일을 하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신랑도 그렇고 친정식구들도 그렇고...아무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참여자 2)

제5주제 모음: 소원해진 가족관계

주제 12. 육아에 대한 견해 차이로 가족과도 갈등을 겪으면서 가족 간 관계가 소원해짐

참여자들은 아이 양육에 충분히 참여하지는 못하였으나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아이 양육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양육방식을 따라 주기를 바라지만, 이것이 가족 내에서 일치되지 않아 자주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양육은 매일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상이므로 가능한 아이양육에 대한 서로간의 불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서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점차 관계가 소원해져 가고 있었다.

동생이 누나를 때렸어. 그러면 이걸 혼내야 되는데, 어른들은 보고도 그걸 방관해...그냥 호호호호 웃고 있어... 그걸 당장 그 자리에서 혼내야 되잖아. 누나를 때리면 안 되다고. 결국 내가 나서서 혼내야 되는 거라... 남편이랑 어른들은 혼내지 않고 방관이야...(참여자 1)

모두 다 내게만 화살을 쏘아요. 감기가 걸려도 내가 일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러니 친정 식구들에게도 문제가 있어도 힘들어도 점점 말을 안 하게 되고 말문이 닫혀버리게 돼요. 발걸음도 점점 뜸하게 돼요.(참여자 2)

주제 13. 남편의 방관자적 태도에 대해 불만이 쌓임

참여자들은 가사와 육아에서 남편의 도움과 지지를 절실히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었다. 가사일은 물론, 육아에 있어서 아빠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이양육에 관심이 없거나 협조하지 않고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남편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드러냈다.

애 키울 때 가장 힘든 거는 신랑이 옆에서 안 도와주는 거...그게 제일 힘들지요.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는데 자

기가 조금만 피곤하면 아기가 옆에서 징징거리면 짜증내고 소리치고...(참여자 3)

제6주제 모음: 지쳐가는 삶

주제 14. 이용가능한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이 과중함

참여자들은 아이가 아플 때와 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변에서 도움 받을 데가 없으며, 결국 모든 책임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힘들어 하였다. 평소에도 하루하루 겨우 아이양육을 해 나가는 환경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돌발 상황은 참여자들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주위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막상 아이가 아프면 모든 게 내 책임이죠. 아이가 아프면 시어머니 불러야죠. 돌보미 선생님이 있다 해도 아이가 많이 아프면 다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하니 난리나요(참여자 8)

주제 15. 벗어날 수도 없고 선택의 여지도 없는 힘든 시간의 반복으로 삶이 지쳐감

참여자들은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의 경제적 위축을 염려하여 당장 일을 그만 둘 수도 없고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도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이러한 일상이 반복되면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어디 가서 상의할 데도 없고 친정에도 편하게 얘기할 처지가 못 되고 얘기하면 일을 그만두라고 하니까요. 책을 읽으면서 위안을 삼게 돼요. 책에는 이상적인 걸 적어 놓았잖아요. 위안을 삼다가도 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니까 또 갈등이 생기고, 반복이죠. 끝이 없는 반복...(참여자 2)

제7주제 모음: 하루하루 버티나감

주제 16. 자신의 힘든 삶이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위안삼음

참여자들은 일을 함으로써 아이에게 경제적인 부분만큼은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고 있었다. 아이에게 충분하게 지원해 줌으로써 더 윤택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아이가 더 행복해 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다. 또한 막상 육아에만 전념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아이를 더

잘 돌봐줄 것 같지 않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하였다.

이왕이면 집에 있는 엄마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나는 버니까 좋은 옷에 좀 더 나은 음식을 먹일 수 있고 내가 버니까 마음대로 사주지...(참여자 7)

막상 내가 집에 있다면 뒷바라지를 더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막상 있다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깐 애들한테 소리 지르거나 잘못해 줄 수도 있겠고...(참여자 6)

주제 17. 아이들이 자라면 일하는 엄마를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버티나감

참여자들은 지금의 힘든 상황으로 인해 순간순간 지치고 혼들리기도 하지만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먼 훗날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주고 엄마를 자랑스러워 할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위안을 삼으며 참고 견뎌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면서도 지금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이라 여겼다.

빨리 시간이 5년 10년 후딱 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모든 상황들이 끝나 있을 거 아니예요. 그때가 되면 애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빨리 시간이 흘러 지금 내 생각이, 내 방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아 엄마가 멋있다, 엄마 같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2)

2. 양육부담감의 본질적 구조 기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에 대한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취업모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싶지만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일과 가사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었다. 늘 시간이 부족하여 아이에게 충분한 보살핌과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재촉하거나 자주 짜증을 내게 되어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며, 이러한 미안함을 갖은 애정표현이나 선물 등으로 보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자 노력하였다. 어린 아이를 둔 취업모들은 자신의 취업으로 인해 아이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것에 크게 불안해하였다. 또래 전업주부들과 어울리지 못하면서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는 신체적 피로로 인

해 아이 교육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현실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일, 가사, 육아를 감당하며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조금의 실수에도 ‘부족한 엄마’라는 비난에 속상해하며, 양육방식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로 대리 양육자인 가족과도 갈등을 겪으면서 대화는 점차 줄어들고 관계도 소원해져 갔다. 양육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과 육아와 일 사이에서의 반복되는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삶은 점점 지쳐가지만, 지금 자신의 노고를 언젠가는 아이들이 알아줄 것이라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취업모가 경험하는 양육부담감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해 시도된 현상학적 연구로 양육부담감의 7가지 주제모음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주제모음은 ‘끊임없이 갈등하는 삶’으로, 참여자들은 일과 양육을 병행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지만 아무도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어 하였다. 성공중심의 사회속에서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한 궁극적 목표를 가지면서도 자기계발에 대한 부담과 아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양육 현실 간의 상충되는 상황으로 인하여(Yang, 2011) 갈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가 가정에서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직장 내에서도 여성으로서 특별한 배려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두 역할사이에서 힘들어 한다는 Kim, Kim과 Lee (2011)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이러한 고민과 갈등은 양육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켜 자녀를 둔 젊은 취업 여성들뿐만 아니라 미혼여성들에게도 자녀 출산을 고민하게 하는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Kim et al.),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일, 가정 양립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주제모음은 ‘죄책감’으로, 참여자들은 전업주부처럼 온종일 아이를 잘 보살피주지 못하여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꼈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자녀를 위한 희생정신과 책임감이 강하여 돌봄이 부족하거나 양육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죄책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으로(Sung & Park, 2011), Yang과 Shin (2011)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참여자들은 의도적인 스킨십으로 사랑을 각인시키고, 자녀가 원하는 물건을 갖게 함으로써 부족한 엄마 역할을 만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하는 어머니와 집에 있는 어머니 간 영유아 자녀의 발

달위험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취업이 아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모들은 자녀에게 갖는 과도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현명하고 일관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아이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일, 가사, 육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과 피로로 인해 쉽게 짜증을 내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가시기도 전 또 다른 노동을 시작해야 하는 이중의 긴장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 소진을 경험하기 때문일 것이다. 스스로 감정조절에 실패한 취업모는 미안한 마음과 죄의식을 느끼고 이를 만회하고자 최대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질적으로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부담을 더 가지게 된다(Kim & Chang, 2008). 이러한 현상은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스트레스로 인해 모아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녀의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Yoon, Hwang, & Cho, 2009)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결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주제모음은 ‘아이교육에 관한 정보와 시간부족으로 불안함’으로, 참여자들은 자신은 일을 하고 있어서 절대시간이 부족함에도 자녀교육에 임하는 자신의 처지를 전업주부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조급하고 불안해(Mishina, Takayama, Aizawa, Tsuchida, & Sugama, 2012; Yang & Shin, 2011)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녀교육열이 매우 높고 자녀의 성공 여부에 따라 능력있는 어머니로 평가되기 때문에 취업모에게 자녀교육은 이중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Lee, 2007).

게다가 참여자들은 늦은 퇴근 시간과 피로함으로 자녀의 학습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 현재 자녀의 학업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장래까지도 염려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녀양육에서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교육 문제에서만큼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이로 인해 받는 양육 스트레스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주제모음은 ‘부족한 엄마로 낙인찍힘’으로, 참여자들은 고된 삶을 누구에게든 편하게 털어놓고 위로 받고 싶었지만 오히려 전업주부보다 육아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고, 부족한 엄마라는 낙인이 늘 따라다녔다. Yang과 Shin (2011)의 연구에서도 취업모는 ‘가정을 포기한 여자’라는 인식과 여성의 역할을 가족 중심에 두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힘들어 하였다. 하지만 실제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비교하였을

때 가정에서의 안전사고나 입원 경험 등에 차이가 없으며 양육태도 측면에서도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Bang, 2004). 즉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는 우리 사회의 불공평한 편견과 오해 속에서도 취업모는 최대한 아이에게 소홀하지 않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주제모음은 ‘소원해진 가족관계’로, 육아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나 비협조는 가족 간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족관계가 소원해지고 사이가 멀어졌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양육방식과 차이를 보이는 대리양육자는 대부분 할머니였으며, 대리양육자와의 육아갈등은 Kim과 Seo (2007)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취업여성의 경우 배우자와의 불평등한 역할분담과 자녀교육방식에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데(Lee, 2008)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의 양육부담감은 남편의 무관심이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과 달리 남성들이 여성의 취업을 지지하고 가사를 분담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역할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Yang & Shin, 2011) 보인다. 외국의 경우 법적으로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공동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Kim & Seo, 2004) 양육을 인식하는 무게 정도가 우리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자녀양육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내의 문제로 남겨두기보다는 좀 더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취업모가 경험하는 역할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주제모음은 ‘지쳐가는 삶’으로, 평상시에는 물론 특히,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 받을 곳이 없어 어머하든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매우 힘들어 하였다. 이럴 때마다 취업모는 더욱 극심한 갈등을 겪음과 동시에 심신이 지쳐가는 경험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2011)도 부부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육아를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여성의 책임으로 여기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남편이 육아에 협력하기는 하지만 도와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남편의 가치관과 태도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Yang & Shin, 2011)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 주제모음은 ‘하루하루 버티나감’으로, 참여자들은 지금은 힘들지만 아이가 자라면 엄마의 부채를 이해하고,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즉, 현재 자신이 양육에 매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애써 긍정적으로 합리화하면서 버티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실제로 사춘기 딸의 경우 엄마의 사회적 성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성공한 엄마를 자신의 역할 모델

로 삼고 있어(Jeong, 2005) 취업모의 이러한 합리화는 현재의 양육부담감을 이겨나가는 긍정적인 방어기제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취업모의 삶이 힘들고 지쳐가지만 본 연구참여자들은 전업주부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전업주부로서 감당해야 할 양육과 가사일이 두렵기도 하지만(Kim et al., 2011) 사회로부터의 단절과 고립을 원하지 않으며(Kim & Seo, 2012) 일을 하면서 얻는 성취감도 큰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취업모들은 육아와 일 사이에서 갈등함, 육아에 대한 죄의식,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주지 못한 미안함, 남편의 방관자적 태도에 불만을 가짐, 슈퍼우먼을 바라는 주변의 요구, 신체적 피로로 인한 잘못된 양육태도, 아이 교육을 걱정함, 전업주부와 교류가 없고 소외됨, 아이들이 자라면 엄마를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 생각함 등은 취업모의 양육경험에 관한 선행연구(Kim et al., 2011; Kim & Chang, 2008; Yang & Shin, 2011)의 결과와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그러나 가족 관계가 소원해짐, 지쳐가는 삶, 하루하루 버티나감 등의 새로운 주제모음이 도출되었다. 즉, 양육방식에 있어서의 가족간 의견 차이로 가족관계마저 소원해진 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며, 이러한 갈등과 부담감으로 삶은 지쳐가지만 자녀들의 미래와 자녀들이 자신의 노고를 알아줄 것이라는 희망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취업모의 이러한 부정적인 양육경험은 둘째, 혹은 셋째 아이의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어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을 줄이기 위하여 양육부담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이면서도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취업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그들의 미안한 마음을 위로해야 하며, 취업모 역시 잘못된 모성애적 믿음에서 비롯된 죄의식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가 경험하는 양육부담감의 본질을 밝히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참여자의 경험을 심층 기술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결과 7개의 주제모음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는 ‘끊임없이 갈등하는 삶’, ‘죄책감’, ‘아이교육에 관한 정보와 시간부족으로 불안함’, ‘부족한 엄마로 낙인찍힘’, ‘소원해진 가족관계’, ‘지쳐가는 삶’, ‘하루하루 버티나감’ 등이 포함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본질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시해 주며,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사회취업 저해요인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는 취업모가 경험하는 양육부담감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된 연구로, 취업모의 입장에서 양육 부담감과 관련된 현상을 전반적으로 다루었으며,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보살핌이 더 필요하고 자녀의 수나 터울에 따라라도 양육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여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 부담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제한점을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는 생후 12개월 이상 6세 이하의 어린 아동을 가진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연령대에 따른 양육부담의 차이를 고려하여 동일한 연령대의 자녀를 가진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정된 질적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의 주관적 속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 개발을 제안한다.

REFERENCES

- Bang, K. S. (2004). Childrearing attitude and burden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and temperament and health related variables of their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0, 217-224.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p. 48-71).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Han, K. J. (1997). The study on the maternal burden of caretaking, the support and educational need for the caretaking activities of the infants' moth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3, 228-240.
- Hill, E. J., Hawkins, A. J., Ferris, M., & Weitzman, M. (2001). Finding an extra day a week: The positive influence of perceived job flexibility on work and family life balance. *Family Relations*, 50, 49-58. <http://dx.doi.org/10.1111/j.1741-3729.2001.00049.x>
- Jeong, B. S. (2005). *A study on working mother and non-working mother's upbringing attitude and influence of their children's emotion and social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 Kim, E. J., & Seo, Y. H. (2007). A qualitative study on child-rear-

- ing by grandpar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8, 175-192.
- Kim, E. J., & Seo, Y. H. (2012). A study on child rearing experience of stay-at-home mom with infants.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7, 93-114.
- Kim, K. E., & Chang, Y. J. (2008). A hermeneutics phenomenological study on working mothers' experiences of rearing their firstborn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9, 31-43.
- Kim, M. K., & Seo, D. H. (2004). A comparative study on formation of gender policy and transition of government role in Korea, Britain and Sweden - perspectives of feminism.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8, 349-370.
- Kim, S. Y., Kim, S. M., & Lee, K. Y. (2011). A qualitative study on dual earner families' work and family lives for ideal work-family balanc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5, 93-116.
- Ko, J. S. (2008).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enting-burden,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mothers of the child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9, 1-17.
-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1, December). *The Basic Analysis Report of Korean Children Panel Survey 2010*. Retrieved December 10, 2012, from http://www.kicce.re.kr/kor/publication/02_03.jsp?mode=view&idx=3524&startPage=0&listNo=0&code=&search_item=&search_order=한국아동패널&order_list=10&listScale=5&view_level=0
- Lee, J. Y. (2008). *An analysis of psychological stress of working married women in child c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 Lee, K. Y., Park, I. S., & So, H. Y. (2008). Parenting experience of parents with a disabled child.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11, 32-40.
- Lee, M. K. (2007). A discourse on education: An analysis of the attitude of middle-class Korean mothers on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Korean Journal of Society of Education*, 17, 159-181.
- Lincoln, Y. S., & Guba, E. G. (1985).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November). A study on a public awareness related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in Korea. Retrieved December 25, 2012, from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0502&CONT_SEQ=267427&page=1
- Mishina, H, Takayama, J. I., Aizawa, S., Tsuchida, N., & Sugama, S. (2012). Maternal childrearing anxiety reflects childrearing burden and quality of life. *Pediatrics International*, 54, 504-509. <http://dx.doi.org/10.1111/j.1442-200X.2012.03577.x>
- Park, G. J. (2008). *A study on the effect of work-family compatibility support policy on child foster burden and childbirth attitude*. Unpublished doctoral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 Shin, Y. H., Kim, T. I., Kim, H. S., Shim, M. K., Lee, H. J., & Hong, M. R. (2009). *Pediatric nursing*. Paju: Yangseowon.
- Song, Y. M., & Lee, J. S. (2011). Investigation of the causes of low birth-rate: Focused on the change in industrial society and the expansion of the opportunity of women for social activiti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1, 27-61.
- Statistics Korea. (2011, April).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Retrieved July 21, 2012, from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72
- Sung, J. W., & Park, S. Y. (2011). Maternal guilt and its related variables: Focusing on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child ag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11, 123-145.
- Yang, S. N. (2011). Strategies for balancing work and family: The experiences of full-time working mothers. *Journal of Korean Family Therapy*, 19, 103-126.
- Yang, S. N., & Shin, C. S. (2011). Work-family conflicts: Challenges of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1(3), 70-103.
- Yoo, G. S. (2012). Work-family balance policies responding to low fertility.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8, 111-125.
- Yoo, I. Y., & Kim, D. H. (2006). Mothers experiences of parenting of a child with atopic dermatiti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0, 169-179.
- Yoon, J. W., Hwang, R. I., & Cho, H. H. (2009). Parenting stress and related factors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5, 294-302.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experience parenting burden because they hold down a job and run a household at the same time.

■ **What this paper adds?**

This study provides an overall understanding related to parenting burden. Even though working mothers' children are young, they have a concern that they may have less opportunity to share information caused by being isolated from housewife society. They are stressed for their children who may be left behind at school from their peers because of lack of information.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Understanding the experiences of working mothers related to parenting their young children would help to serve as a medium for the formulation of appropriate nursing intervention relevant to burdens of parenthood.